

2000년대 한복에 나타난 배색 경향에 관한 연구

- 배색의 유형과 한복의 종류를 중심으로 -

이영혜* · 강순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박사과정*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Coloration Trend of Hanbok in 2000's

- Focused on Types of Coloration and Hanbok -

Young-Hae Lee* · Soon-Che Ka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6. 11. 1 토고)

ABSTRACT

Characteristics of Hanbok's traditional coloration have been carried on, based on social/cultural background of the past. Today, Hanbok is classified as traditional Hanbok, improved Hanbok, living Hanbok. Their designs, materials and coloration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is study, first, we have categorized and arranged the coloration trend of the women's Hanbok according to the types of coloration since 2000s. Secondly, Hanbok is classified as traditional Hanbok, improved Hanbok, and living Hanbok. And then examining their coloration trend and coloration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of Hanbok, so we can find the purpose for increasing understanding of various color beauty and coloration of today's Hanbok.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 Traditional Hanbok coloration is influenced by the modern color and tone, and is apt to show the trend of emphasizing individuality.
- Hanbok coloration of middle period in 2000's has become to use high value and chroma, giving more bright and luxurious impression than the early period.
- For this study, we have categorized the total of 277 women's Hanboks by their coloration trends, through studying traditional Hanbok catalogues that enclosed vividly colored pure silk samples. As a result, it shows the order of contrary coloration(149), tone on tone coloration(56), similar coloration(23), monochrome coloration(20), tone in tone coloration(17), and 화학섬유chrome coloration(12).
- Traditional, improved and living Hanbok show differences not only in their designs or materials but also in colorations. Using of traditional coloration is applied to traditional Hanbok and improved Hanbok in that order, and mostly the value and chroma of living Hanbok colorations are low, which emphasizes easiness to move and practicality.

Key words: coloration trend(배색경향), traditional Hanbok(전통한복), improved Hanbok(계량한복), living Hanbok(생활한복)

corresponding author: Soon-Che Kang, e-mail: kangsc@catholic.ac.kr

I. 서론

복식은 한 개¹⁾의 개성을 표현하는 매체이기도하면서, 해당국가의 문화수준을 표현하는 척도가¹⁾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전통의 계승인 동시에 미래의 복식문화를 구축하는 전통복식인 한복에 대한 관심과 연구 및 미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외모와 용도에 맞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여 제작되고 있는 한복은 전통복식문화의 형성과 개성 존중이라는 양면성²⁾을 충족시키기 쉬운 이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美的 특성에서 색채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는 한복이 서양복에 비해 패턴 변화의 폭이 좁고 평면적이며 소재와 용도가 다소 제한적이므로 복식의美的構成要素 중에서도 색채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색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복과 관련하여, 임원희는³⁾ 한국 전통 복식의 배색에서 배색 변화에 따른 이미지의 차이는 배색방법과 배색대비 효과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이해숙은⁴⁾ 한복 무늬 배열의 비교에서 의복색이 파랑색보다 적색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한복의 색채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한복은 그 배색만으로도 착용자의 신분과 연령 및 용도를 유추해 낼 수 있을 만큼 그 비중이 컸는데, 오늘날에도 한복의 용도와 연령을 고려하여 배색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또한 전통 한복의 배색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있어서 혼례 및 잔치에는 채도가 높은 오방색 계열을, 평상시에는 백색, 또는 담채색 계열의 고명도 저고리와 저명도 치마의 배색이 많은 편이다.

한복의 전통적 색채의 특성은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그 정서를 담아 맥을 이어 내려왔는데, 현대 한복의 배색은 염료 및 염색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성과 미적 표현의 자유로 인해 색상과 톤이 다양해졌다. 또한 전통한복, 개량한복, 생활한복으로 구분되어지면서 디자인, 용도, 소재가 차별화 되고 배색에서도 각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色彩觀을 지켜온 한복의 배색에 현대적인 색채 정서와 사회적 경향이 반영

되어진 변화에 대해 2000년대 여자한복의 배색 경향과 용도별 한복의 배색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 한복일지라도 사회 문화와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여건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현대 한복의 배색에는 오늘날의 정서가 담겨지기 때문이다.

한복의 색채에 관한 자료로는 한국 복식 관련 문헌 및 색채 관련 문헌에 있는 내용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2000년대 이후의 한복 카탈로그를 참고하여 한복의 주요 배색 경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200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전통 여자 한복의 배색 경향을 배색의 유형에 따라 정리하고 둘째, 한복의 용도에 따라 전통한복, 개량한복, 생활한복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배색 경향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한복의 다양한 色彩美와 배색에 대한 이해 증진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여자 한복과 색채의 변화

1. 우리나라의 傳統 服色 및 전통색의 특징

한민족은 예로부터 음양오행사상과 무속적·불교적인 신앙의 영향⁵⁾ 및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가시적인 색채보다는 정서적이고 상징적 의미의 색채에 비중을 두는⁶⁾ 경향이 있고, 우주만물의 질서 및 조화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색채를 표현하였으며⁷⁾ 오정색(午正色)과 오간색(午間色)에 의미를 두어 실제 의복에 적용하여 왔다. 또한 한국인은 지리적, 환경적 여건으로 자연에 동화되는 자연색의 이미지를 즐기면서 민족적 정서에 따라 백색과 청회색 계열을 선호⁸⁾하였다.

한복은 전통적인 색채관념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전통복색은 채도가 높은 원색과 함께 백색을 선호하였고 淡彩色이라는 고유색을 만들어냈다고⁹⁾ 볼 수 있다. 원색을 조화 있게 배색한 궁중의 복식을 비롯하여 부유층 및 높은 신분층의 여성 복식, 비록 서민층이라 할지라도 의례복이나 명절복 색의 채도는 높았고, 특히 원색이 주로 사용된 의례복이나 명절복은 색상 대비를 크게 주어 의복의 조형성을 강

조하려는 의지가 두드러졌으며¹⁰⁾ 높은 채도의 적색과 남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에 일상적인 서민층의 복식은 담채색 계열로, 김영숙은¹¹⁾ 淡色系의 유채색 즉, 특히 紫, 黃, 赤, 靑 등의 색이 농담의 변화를 거치면서 송화색, 분홍, 옥색 등이 정착된 것을 고유색의 정착이라고 보았으며, 우리나라 전통색의 색조는 백색 선호로 인하여 유색에서도 고명도의 색상이 선호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백색을 주조색으로 한 평상복이 많았던 조선시대의 백색은 옥색, 남색, 두록색, 분적색 등의 중간색과 어울려 차분하고 담백한 평상복의 색채조화로 조선복식의 미적 특징이 되었다.¹²⁾

한국인의 색채관은 원시 주술적 사상에 음양오행사상이 접목되어 민족 고유의 색 관념을 형성, 실용적이고 환경적인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면서 조선 시대에는 유교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계급 상징의 수단으로도 나타난¹³⁾ 동시에, 자연색과의 조화를 이루는 한국적인 정서로 은은하면서 조화로운 색채배색체계를 이루었다고¹⁴⁾ 하겠다.

2. 전통 한복의 배색

전통 한복의 색상은 적색계, 청색계 등으로 군집화 하는 특징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톤을 나타내므로 명확하게 규정짓기는 어려우나, 부유층 및 높은 신분은 채도가 높은 화려한 색상을, 서민층은 백색과 담채색 계열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일반적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즉 전통저고리의 배색에서도 신분에 따라 배색을 달리하여 삼회장저고리는 주로 사대부가에서, 민저고리는 서민층에서 입었고, 서민층일지라도 경사 시에는 높은 채도의 복색을 착용하였다는 점도 그 한 예이다.

전통복식에 사용된 색상 분석에 의하면¹⁵⁾ 의복에서는 백색을 포함한 중간색이 많이 사용된 반면에 장신구들은 원색 계통의 색상을 주로 사용하였고, 색상은 백색(W), 빨강색(7.5R), 노랑색(2.5R), 남색(7.5PB), 검정색(B) 등 오방색 중심으로 분포되고 있다. 또한 색채의 명도 및 채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비비드(vivid)계의 색군에는 적색, 브라이트(bright)계의 색군은 황색, 페일(pale)군은 백색과

옥색, 밝은 회색과 미색, 분적색 등이, 다크(dark)군에는 남색과 자주색이 분포되어, 중간 톤의 색채 대신 대비가 분명한 색채를 사용하여 담백한 분위기와 함께 의복의 형태를 부각하는 특징을 보였다.

일반적인 한복의 배색을 살펴보면¹⁶⁾ 젊은 여자는 다흥치마에 색동 또는 노랑저고리, 연두저고리를 입었고, 계례 때에는 어여머리에 노리개를 하고 겹치마에 옥색 회장저고리와 초록 당의, 원삼을 입었으며, 혼례시의 신부는 족두리와 칠보화관, 활옷 외에 다적색치마와 노랑삼회장저고리를 입었다. 중년 여자는 남색치마나 자주색치마에 옥색저고리나 분적색저고리를 입었으며, 노년 여자는 남치마나 회색치마, 또는 자주색치마에 옥색저고리, 연분홍저고리, 미색저고리를 입었는데, 특히 자색계는¹⁷⁾ 저고리의 깃과 고름, 끝동에도 사용되면서 모든 신분 계층과 성별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보였다.

<사절 복색 자장 요람>에 의하면¹⁸⁾ 3월에는 녹색 항라 당의, 4월과 단오까지는 초록 광사 당의, 여름에는 백광사 당의, 8월 경에는 초록색 깨끼 당의와 적색 비단 위치마를 입었다. 덕혜옹주의 유년기 생일과 명절복에서 언급된 색상을 보면, 주의는 분홍, 저고리는 송화색과 분적색, 치마는 다적색과 분적색 등이다. 특수 신분의 기녀복은 대체로 화려하였는데 국빈을 대접하는 향연에서는 흑색, 가무를 맡은 정재의 복색은 붉은색으로 색에 대한 규제가 심하였던 반면, 장삼이 허용되었고 약방기생의 예복은 녹의홍상에 큰 머리와 고름에 침통을 찰 수 있는 파격적인 대우받았다.¹⁹⁾

근대 한국 복식의 특징으로는 백색저고리와 진한 치마 색과의 배색구조, 겹정색의 사용, 동색 배색의 사용을 들 수 있고, 원색 대비는 어린아이의 복색에서, 중간색채의 배색은 성인들의 복식에서 사용되었다²⁰⁾. 국말 사진 자료에 의하면 다흥·분홍·연두·남색 등의 치마에 노랑·분홍·미색 등 짙은 삼회장저고리의 배색을, 1940년대의 어린이 옷²¹⁾에서는 겹정 통치마와 분적색 저고리의 여아 한복배색을 볼 수 있다. <평생도풍속화>에 나타난 여아의 한복 배색에서는 다흥치마와 노랑회장저고리가 혼하고, 연두, 연분홍, 남, 녹, 색동을 다양하게 배색하였

다²²⁾). 김미진은(2006) 한국근대 서양화에서 표현된 한복의 색채는 전통적인 색채감각을 전승하고, 명도와 채도의 차이로 따른 면적분할의 원리가 적용된 뛰어난 배색력을 보였다고 결론지었다²³⁾.

3. 현대 여자 한복의 배색 변화

신분계층에 따른 색채 구분이 무의미해진 오늘날의 한복은 착용자의 연령이나 용도에 따라 색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급의례 복식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통복색에서 서민층을 대표하던 백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평상복 보다는 과감하고 화려한 색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의 한복 배색은 매우 다양하여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던 저명도나 고채도의 색상들도 과감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양복의 배색 영향, 화학 염료의 사용과 더불어 개인주의적 경향이 한복 선택에 반영되고²⁴⁾ 있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한복은 1960년대 후반부터 장식성이 짙어지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염료의 개발과 염색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한 색상과 문양이 표현되었다. 1990년대는 한복 화실을 중심으로 염색과 手畫가 확대되어, 저고리와 치마 색이 같은 배색에 그라데이션 염색과 수화를 그린 한복이 유행의 주류였던 시기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중반기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 후반기 한복의 배색은 경기 침체라는 사회적 배경을 나타내듯이 대체로 어둡고 진한 색채가 많은 편이었으며, 천연 염색 또는 이와 비슷한 파스텔 톤에 의한 차분한 분위기의 배색이 많았다. 1999년과 2001년 한복의 색변화를 연구한 결과에²⁵⁾ 의하면 1999년에는 pale 톤에 속하는 한복들이 많았으나(21.8%) 2001년에는 dark(15.6%)와 vivid(15.3%) 쪽으로 옮겨지고, 동색 배색에는 붉은색 계열이, 이색 배색에는 백색, 파랑, 적색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1년에는 전통 배색에 따른 한복의 비중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한복의 전통성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고유의 색감과 미적 취향이 반영되었다.

한복 전문 월간지 및 카탈로그에 의하면 1990년

대까지는 단색의 한복이거나 고름 색과 치마 색이 동일한 색이고 저고리만 다른 색인 이색배색이 많았으나,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들어 2000년대에 이르면 고름의 색을 달리한 삼색배색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전반기의 한복 배색은 손염 및 침염 등으로 혼합색의 톤이 많아지면서 동색 계열의 배색이 유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기의 한복 배색은 전반기와 비하여 현저하게 밝고 화사한 톤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저고리의 색상범위가 넓어지고 연령에 비해 젊고 화사한 배색을 선호하는 경향과 함께 자연스러운 느낌의 색채를 선호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배색이 나타났다.

III. 2000년대 여자 한복의 배색 및 특징

직물 제작 및 자수 등 한복 원단과 관련된 제반 분야 특히 염료와 염색 기법의 발달은 한복 색채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톤의 배색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개성 표현 중심 및 다양한 디자인과 새로운 아이템의 개발, 개량한복 등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경향들 역시 한복의 배색과 톤을 다양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2000년대의 한복 화보집 및 원단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여자 한복의 배색 자료는 2000년대 전반기부터 2006년도까지 나와 있는 한복 카탈로그에 실린 한복 배색을 중심으로 하였고, 특히 사진에 의한 한복의 색상과 톤의 분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단 swatch와 대표 색상을 기호화한 The Color Coordination For Designers,(1990)에 제시된 Color Conversion Chart를 참조하여 표기하였는데, Color Conversion Chart는 허용 오차가 국제표준 이하로 적으며 도료를 사용한 KBS SC NO와 그에 유사한 Munsell Color No와 잉크를 사용한 PROCESS NO를 제시하고 있다.²⁶⁾

1. 한복의 배색 유형에 따른 분류

배색의 유형으로는 대비 배색, 유사색 배색, 톤인

톤 배색, 동색계열 배색 (Tone on tone), 동색 배색 (악센트 컬러링 배색), 다색 배색(멀티 컬러 배색), 그라데이션 배색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색상이 선명한 silk 소재의 전통한복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총 277벌에 대한 여자한복의 배색 경향을 분류하였다.

배색유형에 따른 전통한복배색의 분포는 <표 1>에, 한복에 나타난 대표색상의 도표는 <표 2>에 표기하였으며, 한복의 배색유형은 <표 3>에서 대비배색 (149), 동색 계열 배색 (56), 유사색 배색 (23), 동색 배색(악센트 컬러링 배색)(20), 톤 인 톤 배색 (17), 다색 배색 (12)의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1) 대비 배색(Color contrast)

대비 배색은 색상대비와 명도 및 채도대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색상대비는 주로 연령층이 낮은 한복의 배색으로, 명도 및 채도대비는 비교적 연령층이 높은 한복의 배색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와 현대 한복 배색과의 비교(김순영, 2002)²⁷⁾ 결과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듯이 한복의 배색에서 많이 이용하는 배색이다.

색상대비는 어느 한 색이 다른 색을 제압하지 않고 대조되므로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와 단순하고 명쾌한 느낌을 준다. 주로 붉은색 계열이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적색 계열의 치마 색과 대비되는 색으로 저고리를 배색하는 유형이 일반적이며, 연령대가 낮은 여자 한복이 여기에 속한다. 명도 및 채도의 차가 큰 한복의 배색에서는 주로 짙은 색의 치마 색과 밝은 색의 저고리 색을 대비시킨 배색이 많으며, 이 경우 고름의 색상은 치마 색상과 같거나 저고리 색상과 대비되는 색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 한복에 나타난 대비 배색은 <그림1>에서 보듯이 전반기와 중반기로 구분하였을 때 특히 치마의 색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반기 색상의 명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사색 배색(Analogy coloring)

유사색 중심의 배색은 시각적인 거부감을 줄여서 조화 있는 느낌을 주는데, 색상환을 기준으로 인접

색과의 배색은 다소 단조롭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한 색 건너와의 배색은 보다 화려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한복에 적용된 유사색 배색은 30~50대를 위한 배색이 많은 편이며, 인접색과의 배색일수록 차분한 느낌을 주게 된다.

김장향(2003)은²⁸⁾ 한복의 톤별 배색에서 類似ton 배색을 가장 조화감 있는 배색이라고 보면서 유사 톤 배색 내에서 명도가 높은 것끼리 배색하면 좋은 배색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강혜원(2003)은²⁹⁾ 한복의 색 배합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치마와 저고리가 같은 색인 한복보다 다른 색인 한복이, 그 중에서도 저고리보다 치마가 더 진한색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여성스럽고 품위 있는 유사 배색을 선호하되 배색의 종류보다는 치마색이 선호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유사 배색은 현대 한복에서보다 조선 후기의 한복배색에서 더 많이(김순영, 2002) 채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대 한복의 카탈로그에서도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사배색이 혼례시 꼭 한복을 입어야하는 신부나 어머니용 한복의 배색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 비해 일상복으로의 역할이 감소된 현대에 이르러 그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3) 톤 인 톤 배색(Tone in tone 배색)

톤 인 톤 배색은 색상은 서로 다르지만 명도와 채도가 비슷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배색이다. 따라서 색상의 톤에 있어 통일감 있는 조화로운 느낌을 주지만 한복 배색의 전체적 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림 1>의 톤인톤 배색은 전반기보다 중반기 한복 배색이 더 밝고 화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4) 동색 계열 배색(Tone on tone)

동일 계열색 또는 비슷한 계열색끼리 톤을 다르게 배색을 하는 동색 계열 배색은 고상한 분위기를 갖기 때문에 높은 연령층의 한복배색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신랑 어머니 및 신부 어머니용 한복이 많은 편이다.

<표 1> 배색유형에 따른 전통한복배색의 분포

| 배색 유형 | 대비 | 유사 | 톤인톤 | 동일계열색 톤온톤 | 동색 액센트컬러 | 색동 멀티 컬러 | 계 |
|-------|------|-----|-----|--------------|-------------|-------------|------|
| % | 53.8 | 8.3 | 6.1 | 20.2 | 7.2 | 4.3 | 99.9 |

김장향(2003)은 색상이 같은 톤별 배색에서, 톤은 동일 배색에서 가장 조화감이 있다고 하였고, 강혜원(2003)은 저고리보다 치마가 더 진한색인 한복이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표1>에서도 동일 계열색 배색은 대비 배색 다음으로 다양한 색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치마 색을 저고리 색 보다 짙게 한 배색이 많다.

5) 동색 배색(액센트 컬러링 배색)

조선후기에서 1990년대까지의 한복 배색에서는 치마와 저고리의 고름까지도 단색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 많아진 다른 색 고름의 경우는 액센트 컬러링(Accent coloring) 배색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액센트 컬러 배색은 포인트를 주고자 하는 디테일이나 액세서리에 메인 컬러와 대비되는 색을 써서 돋보이게 하는 배색이므로, 저고리와 치마가 단색일 때 면적대비로 고름의 배색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저고리와 치마의 색상이 같은 한복은 현대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김순영, 2002) 있다고 보았으나, 한복의 색 배합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강혜원, 2003) 치마와 저고리가 같은 색인 한복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서로 다른 색으로 배색된 한복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복에 있어 동색 배색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분홍, 진분홍, 적색 등을 파티복처럼 입는 등 연령에 제한 없이 사용되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0년대에 이르면 일부 파티복 및 약혼복을 제외하고는 연령대가 높은 여자 한복이 주를 이루며, 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색상이 많다.

6) 다색 배색(Multi coloring)

다색 배색은 세 가지 색 이상인 배색으로, 현대 한복은 깃과 고름을 포함하여 삼색 배색이 많은 편이지만, 앞서 면적 대비로 보아 깃과 고름을 제외하였으므로 소매 부분이 여러 가지 배색으로 되어 있는 색동저고리와 결마기가 포함된 삼회장저고리가 다색 배색이라고 볼 수 있다. 다색 배색에는 색상환

<표 2> Color Conversion Chart(The Color Coordination For Designers / 색상참조)30)

| 색상 | Munsell Color No | PROCESS NO | KBS SC NO | 색상 | Munsell Color No | PROCESS NO | KBS SC NO |
|-----------------------|-------------------------------|-----------------------------|-----------------|-----------------|-------------------------------|--------------------------------|-------------------|
| 주황 · 적색계 | 10R 5/12 5R 4/14 | Y90 M70 Y100 M100 | 81 50 | 회색계 · 검정 | N2 N1 | B85 B100 | N2 N1 |
| 분홍 · 진분홍 · 산호색계 | 5R 8/4 5RP 6/10 5R 5/12 | Y15 M25 M70 Y50 M80 | 27 568 48 | 팔색 · 보라계 | 10P 7/6 5P 5/6 10P 3/10 | M30 C15 M55 C50 M100 C70 | 524 495 537 |
| 미색 · 황금 | 10YR 9/2 5Y 8/14 | Y10 M4 Y100 M10 | 108 162 | 연두 · 청록계 | 5GY 8/4 5BG 4/8 | Y50 C25 Y50 M25 C100 | 197 329 |
| 베이지계 · 밤색계 | 10YR 7/2 5YR 3/4 | Y20 M16 C10 Y100 M90 C75 | 110 96 | 연쑥색계 · 카키계 | 5GY 8/6 5GY 3/4 | Y55 C40 Y100 M50 C80 | 203 202 |
| 연자 · 자주계 | 5R 5/6 5R 3/6 | Y30 M60 C30 Y90 M100 C60 | 36 38 | 하늘색 · 소라색계 | 5B 8/4 5PB 8/4 | Y5 C45 M10 C30 | 367 422 |
| 정색계 | 5P 28 5RP 26 | Y45 M80 C80 Y50 M90 C65 | 504 561 | 남색 · 감색(紺色)계 | 5PB 4/12 5PB 2/6 | M50 C100 Y50 M90 C100 | 446 435 |

<표 3> 배색유형에 따른 전통한복의 배색¹⁾

| 배색 분류 | 대비 | | | 유사 | | | 톤 인톤 | | | 동일계열색 톤 온톤 | | | 동색 액센트컬러 | | | 색동 다색 | | | 계 |
|--------------|----|----|----|-----|---|----|------|----|---|---------------|----|----|-------------|---|----|----------|-----|---|-----|
| | A | B | C | A | B | C | A | B | C | A | B | C | A | B | C | A | B | C | |
| 치마색상 | | | | | | | | | | | | | | | | | | | |
| 적색 계 | 35 | 31 | 24 | | 2 | 2 | | 1 | | | | | | | | 3 | 5 | 4 | 107 |
| 분홍·진분홍계 | 2 | 3 | 4 | | | 3 | 2 | 1 | 3 | | 1 | 4 | | | | | | | 23 |
| 황금·베이지계 | | | | 2 | 1 | 2 | 1 | 1 | 1 | | | | | | | | | | 9 |
| 연지·연자주계 | 2 | | | | 1 | | | 2 | | 4 | 1 | 2 | | | | | | | 12 |
| 주황·홍대주계 | 2 | 5 | | 1 | | | 1 | | | 6 | 1 | | | | | | | | 16 |
| 정색 계 | 4 | 5 | 6 | | 1 | | | | | 3 | 4 | | | | | | | | 23 |
| 하늘색·감색(紺色) 계 | 11 | 7 | 7 | | | 1 | | | 1 | 3 | 3 | 5 | | | | | | | 38 |
| 청록·카키계 | 1 | | | 2 | 1 | 1 | 1 | | | 10 | 4 | | | | | | | | 20 |
| 회색·팔색 계 | | | | 1 | 1 | 1 | 1 | | 4 | | | | | | | | | | 9 |
| 분홍·팔분홍/산호계 | | | | | | | | | | | | | 4 | 3 | 3 | | | | 10 |
| 흰녹색 / 연카키 | | | | | | | | | | | | | 4 | 2 | 1 | | | | 7 |
| 하늘색·회색 | | | | | | | | | | | | | 1 | 2 | | | | | 3 |
| | 57 | 51 | 41 | 6 | 7 | 10 | 6 | 6 | 5 | 25 | 19 | 12 | 8 | 6 | 6 | 3 | 5 | 4 | 277 |
| 계 | | | | 149 | | 23 | | 17 | | 56 | | | 20 | | 12 | | 277 | | |

에서 인접색상간의 조화로 배색하는 tonal 배색과 반대색 중심의 배색을 하는 tone cross 배색이 있는데, 색동저고리의 색동에서도 두 가지 느낌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복의 장식 경향을 보면 깃이나 끝동에 부분적으로 색동을 넣어 꾸미거나 패치의 활용이 많아졌는데, 이 또한 주요 배색으로 보기 어려워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7) 그라데이션 배색

색상이나 톤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배색으로 특히 1990년대의 한복배색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 한복 카탈로그에서는 간간이 한복 출의 배색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2. 한복의 종류에 따른 배색 분류

2000년대의 카탈로그 중 19권을 선택하여 총 649벌의 한복배색을 한복의 종류에 따라 전통한복 277벌, 개량한복 211벌, 생활한복 (화학섬유/ 면 / silk) 50벌, 모시 소재의 한복 46벌, 인견 소재의 한복 12벌, 누비 소재의 한복 53벌로 분류하여 각각 <표 4><표 5><표 6><표 7><표 8>로 나누어 배색을 살펴

보았다. 또한 치마 색을 기준으로 한복의 종류별 배색은 <표 9>로 정리하였으며, 전체적인 배색의 색상 분포는 <그림 2>에 비교하였다.

1) 전통 한복의 배색과 특징

(1) 2000년대 전반기 한복의 특징과 배색

2000년대 전반기에는 명도와 채도가 낮아서 전체적으로 다소 어둡고 가라앉은 한복 배색이 주를 이루며, 일반적인 한복의 특징으로는 손자수(手刺繡)가 많고, 부분적인 패치 이용 및 당의의 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2003년 중년여성의 한복을 대상으로 사례를 조사한 연구에³¹⁾ 의하면 저고리의 색상은 진분적색, 연분적색, 진달래색, 주적색 등의 붉은색이, 치마의 색상은 녹색, 고동색, 옥색, 남색, 회색 등으로 분포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년 여성에게 적합한 한복배색의 경우 저고리는 붉은색 계열이 많고 치마색은 남색과 회색 계열이 많다는 점에서 <그림 2>의 일반한복 배색과 흡사하다.

전통적으로 푸른색 계열인 신랑 어머니 배색은 2000년대에도 이어져서 청색, 감색(紺色), 정색 등의 짙은 색 치마와 치마 색보다 연한 저고리 색, 그

| | | 2000년대 배색 유형에 따른 한복의 배색 | | | | | | | | | | | | | | | | | | | | |
|-----------|-------|-------------------------|---|---|---|---|---|---|---------------|---|---|---|---|---|---|---|---|---|---|---|---|---|
| 종류 | | 2000년대 전반기 배색 | | | | | | | 2000년대 중반기 배색 | | | | | | | | | | | | | |
| 구분 | 색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비 | 명도 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인 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색 계·톤 온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1〉 2000년대 배색유형에 따른 한복의 배색

리고 자주색 및 진보라색 계열의 고름으로 구성된 삼배색이 많다. 전통적인 붉은색 계열인 신부 어머니용 한복배색 또한 짙은 붉은색 계열과 옅은 붉은색, 그리고 진보라색 계열의 배색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저고리색이 진하고 치마색이 연한 배색일 때의 고름색은 치마색과 동일하였으며, 저고리색과 치마색이 모두 짙은 배색일 때의 고름색은 치마·저고리에 비해 명도를 높게 하였다.

(2) 2000년대 중반기 한복의 특징과 배색

2000년대 한복배색은 전반기와 비교해 볼 때 치마·저고리의 명도와 채도가 모두 높아졌으며, 저고리의 깃, 끝동, 고름 등에 부분 색동 장식이 많아져 전체적으로는 색상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색동저고리의 배색 또한 명도와 채도가 높아졌으며, 소매 색동에 손자수(手刺繡)가 추가되기도 하고 색동간의 간격도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푸른 계열의 배색인 신랑 어머니용 한복배색과 붉은색 계열인 신부 어머니용 한복배색도 전체 배

색의 톤이 밝아졌는데, 치마색과 고름색이 같은 배색의 비율은 전반기와 비슷하나 명도 차는 크며, 저고리색은 전하면서 치마색은 연한 배색으로 구성된 배색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일반적인 한복의 특징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손자수가 많았으나, 치마는 특별한 장식이거나 패치만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끝동 대신에 백색 거들지를 달은 저고리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배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 개량한복의 배색과 특징

2000년대 전반기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고급화된 소재의 개량한복과 함께 실용적인 소재의 개량한복도 증가하였다. 개량한복의 배색은 전통한복과 마찬가지로 중반기로 갈수록 점차 밝게 변하고 있는데, 특히 화학섬유 소재의 색상이 더욱 화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1) SILK 소재로 제작된 개량한복의 배색

개량한복은 원피스에 덧저고리가 추가된 형태가

<표 4> 전통한복의 배색 (고명도/저명도)³²⁾

| 색상 | 연도 | 2003 | | 2004~2005 | | 2005~2006 | | 저고리색 | 치마색 |
|-------------|----------------|------|-----|-----------|-----|-----------|-----|-----------|-----|
| | | 고명도 | 저명도 | 고명도 | 저명도 | 고명도 | 저명도 | 계 | 계 |
| 색동 | 먹적색 | | 3 | | 1 | | | 4 | 12 |
| | 적색 | | | 4 | | 4 | | 8 | |
| 백색 | 적색계 | 1 | 1 | 1 | | 3 | | 6 | 90 |
| 노랑계 | | 3 | 11 | 9 | 5 | 8 | 1 | 37 | |
| 분홍 | 적색/먹적색 | | | 2 | | 2 | | 4 | |
| 연두계 | | 1 | 8 | 7 | | 6 | | 22 | |
| 감색(紺色)계 | | 1 | 6 | 8 | 1 | 5 | | 21 | |
| 미색·은행색 | 진분홍 | 2 | | 1 | 2 | 2 | 1 | 8 | 16 |
| 분홍계 | | | | 1 | | 3 | | 4 | |
| 파랑계 | | | | | 1 | 1 | 2 | 4 | |
| 백색 | 인디연지/진연지 | | 1 | | | | | 2 | 12 |
| 미색 | | 3 | | | | | | 3 | |
| 연분홍 | | | | | | | 4 | 4 | |
| 오리알 | | 1 | | | | | | 1 | |
| 감색(紺色) | | | 1 | | | | | 1 | |
| 감색(紺色) | 분홍/주황 | 1 | 1 | | 1 | | | 3 | 13 |
| 카키·대추 | 황토 | | 2 | | 1 | 2 | | 5 | |
| 베이지산호 | 연살구 | | 1 | 2 | | 2 | | 5 | |
| 주황/홍 | 정색 | 2 | | 1 | 2 | | | 5 | |
| 핑크계/진산호 | | 1 | | 1 | 1 | 2 | 2 | 7 | 21 |
| 연팔/연보라계 | | 3 | | 2 | 2 | | | 7 | |
| 하늘색·연두계 | | | 1 | 1 | | | | 2 | |
| 미색·베이지 | 연자주/자주 | 2 | 3 | 2 | | | | 7 | 17 |
| 연두계 | | | 2 | | | | | 2 | |
| 살분홍 | | 1 | 3 | 2 | 2 | | | 8 | |
| 미색계 | 주황·분홍자주/홍자주 | | | 1 | | | | 1 | 15 |
| 분홍 | | | | | | | 3 | 3 | |
| 주황·산호색계 | | 2 | | 4 | | 2 | | 8 | |
| 연두계 | | | | 1 | 1 | | | 2 | |
| 감색(紺色) | 연두·연숙색계/진카키·복청 | | | 1 | | | | 1 | 18 |
| 미색 | | | 1 | | 1 | 1 | | 3 | |
| 연두·연숙색계 | | 10 | | 5 | | | | 15 | |
| 백색 | 파랑계/감색(紺色) | 1 | | | | 1 | 1 | 3 | 36 |
| 미색·황금 | | | 4 | 2 | 2 | 5 | | 13 | |
| 분홍·산호계 | | 3 | | 1 | 1 | | | 5 | |
| 적색 | | | 3 | | 1 | | 1 | 5 | |
| 은회색·하늘색 | | | 1 | 3 | 1 | 4 | 1 | 10 | |
| 진분홍·적색 | 회·연팔색/진회색·팔색 | 1 | | | 1 | | | 2 | 7 |
| 연팔·팔 | 진회색·팔색 | 1 | 4 | | | | | 5 | |
| 상·하동색 | 분홍·팔분홍·주황·산호계 | 3 | 1 | 2 | 1 | 3 | | 10 | 20 |
| | 흰녹색 / 연카키 | 3 | 1 | 1 | 1 | 1 | | 7 | |
| | 하늘색·회색 | | | 1 | | 2 | | 3 | |
| 고명도계 / 저명도계 | | 33 | 72 | 60 | 34 | 63 | 15 | 156 / 121 | |
| 계 | | | 105 | | 94 | | 78 | 277 | |

많고, 옷감이 얇은 경우 원피스의 윗부분과 저고리의 색을 같게 배색하였으므로 편의상 상의와 하의로 구분하였다.

고상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유사 배색의 경우 상의보다 하의의 색상이 짙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을 주며, 동색 배색과 함께 부분 누비와 자수로 장식을 한 디자인도 많은 편이다. 暖色과 寒色의 배색, 무채색과 유추색의 배색을 비롯한 명도 차가 큰 대비 배색은 하의가 짙은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적색 계열의 색이 많다.

(2) 화학섬유 소재의 개량한복 배색

화학섬유 소재의 개량한복은 silk 소재의 개량한복에 비해 가격대가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중반기에 나온 개량한복 카탈로그의 색상은 전통한복의 소재를 병용하는 최근의 경향 때문에 전통한복의 분위기와 대체로 비슷하다.

유사 배색에는 하의의 색상이 짙은 동일 계열 배색이 많고, silk 소재에 비해 전체적으로 밝은 색상을 나타내며 대부분 기계자수 장식을 포함하고 있다.

색상 대비가 큰 배색에서는 백색과 조화를 이룬 배색, 暖色과 寒色의 배색, 명도를 높여 색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배색 등이 있는데, 백색과 조화를 이룬 배색에서는 상의가 백색이고 하의는 유채색으로 배색하여 안정감과 경쾌한 느낌을 주며, 상의에는 하의의 색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색상으로 부분 배색을 하였다. 暖色과 寒色의 배색은 보색에 가까운 색상을 서로 조합하여 이루어진 예가 많으며 강렬한 색상대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명도가 높은 색상끼리의 배색은 밝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데 붉은색 계열과 노란색 계열과의 조화를 이룬 배색이 많다.〈그림 2〉

3) 생활한복의 배색과 특징

1990년대 전후로 봄을 이루었던 생활한복은 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를 응용하면서 활동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실수요자 위주로 제작되었다. 생활한복의 소재는 일반적으로 화학섬유 및 면 섬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복이 아닌 평상복용으로 분류 시 모시, 인견, 누비까지 생활한복 소재의 범주로 포함하여도 좋을 듯하며, 실크 소재의 경우 가격대가 높고 관리가 어려운 점 등으로 보급률은 낮은 편이다.

(1) 생활한복의 배색(화학섬유/면/silk)

생활한복의 배색은 전통한복이나 개량한복의 배색에 비해 차분하게 가라앉은 저채도의 배색이 많은 편인데, 이는 색상의 선택에 있어서도 활동성과 실용성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세탁이 용이한 화학섬유 및 면 소재의 생활한복에는 상의보다 하의로 안정감을 주는 저채도의 짙은 색이 많다.

(2) 모시 및 인견 소재의 생활·개량 한복 배색

모시를 소재로 한 배색에서는 상의와 하의가 동색이거나 유사배색의 경우, 同 素材를 사용한 전통한복의 배색과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색상대비가 큰 배색은 주로 생활한복의 배색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견 소재의 생활한복 및 개량한복은 2000년대 중반기에 카탈로그가 발행되었으며, 동색 계열의 배색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소재의 특성과 자연적인 분위기의 염색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3) 누비 소재의 생활·개량 한복 배색

누비를 소재로 한 생활한복은 silk 소재와 화학섬유 소재를 막론하고 겨울철에 적합한 暖色이 많은 편이며, 특히 붉은색과 검정색을 이용한 배색이 많다.

4) 한복의 종류에 따른 배색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전통한복의 경우 silk 소재만을 분류하였고 (화학섬유 소재의 전통한복은 silk 소재와 배색의 호흡을 같이 하고 있음) 개량한복 및 생활한복은 소재별로 분류하였다.

치마(하의) 색상을 기준으로 배색을 분류한 〈표 9〉에 의하면 한복의 종류에 따라 색상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생활한복은 전통한복과 개량한복에 비하여 소재별 색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한복의 치마색은 적색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주·정색계, 하늘색·남색·감색(紺色)계, 분홍·진분홍계의 순이었으며, 개량한복의 치마색 또한 적색계인 배색이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하늘색·남색·감색(紺色)계, 분홍·진분홍계, 자주·정색

〈표 5〉 개량한복 배색(33)

| 색상 | 종류 | A 화학 섬유 | B 화학 섬유 | C 화학 섬유 | D 화학 섬유 | E 화 학 섬유 | F 화 학 섬유 | G 화 학 섬유 | H 화 학 섬유 | I silk | J 화학 섬유 | 소계 | 계 |
|----------|-------------|------------|------------|------------|------------|----------------|----------------|----------------|----------------|--------|------------|-----|----|
| 상의 | 하의 | | | | | | | | | | | | |
| 백색 | 백색 | | | | | | | | | | | 2 | 2 |
| 백색 | | 10 | 2 | 2 | 1 | | | | 1 | | 5 | 21 | |
| 미색·연노랑 | 감색(紺色) | 4 | 2 | 1 | 1 | | | 1 | 1 | | | 10 | |
| 분홍·산호·홍 | | 10 | | 1 | 1 | 1 | | 4 | 1 | 1 | 2 | 21 | 52 |
| 분홍진분홍 | 보라계 | 2 | 2 | | | | 1 | 4 | | | 2 | 11 | |
| 연보라계·진보라 | | 1 | | | 2 | | | 2 | 1 | | 1 | 7 | 20 |
| 연노랑 | | 1 | | | | | | | | | 1 | 2 | |
| 연노랑 | 노랑계 | 1 | | | | | | | | | | 1 | |
| 연분홍·다홍·홍 | | | | 1 | 1 | | | 1 | | | 1 | 4 | 6 |
| 감색(紺色) | | 1 | | | | | | | | | | 1 | |
| 진청록 | 연연두 | | | | | | | | 1 | | | 1 | 1 |
| 미색·백색 | 카키·청록계 | | 2 | | | | 1 | | | | 3 | | |
| 분홍·홍 | | | | | | | 1 | | 1 | | 1 | 2 | 5 |
| 백색 | 진분홍 분홍계 | 1 | 2 | 1 | | | | | | | 5 | 9 | |
| 미색·노랑 | | 1 | | | 2 | | 1 | | | | 1 | 5 | |
| 분홍계 | | 1 | 3 | 1 | 2 | 1 | 4 | 1 | | | 4 | 17 | 33 |
| 감색(紺色) | | 2 | | | | | | | | | | 2 | |
| 백색 | 자주· 여자주계 | 1 | 1 | | | | 1 | | | | | 3 | |
| 연노랑 | | | | | | | | | 1 | | | 1 | |
| 인평·연산호·홍 | | 1 | 2 | | 5 | | 1 | | | | | 9 | |
| 분홍·팔분홍계 | | 1 | 1 | 2 | 3 | | | 1 | 2 | 2 | | 12 | |
| 회색·검정색 | | | 2 | | | | | | | | | 2 | |
| 미색·연노랑 | 산호·주황계 | 2 | | 1 | | 1 | | | | | | 4 | |
| 연주황 | | 2 | | | | | | | | | | 2 | 6 |
| 백색 | 적색계 | 8 | | | | 1 | 1 | 1 | | | | 11 | |
| 미색·노랑 | | 9 | 3 | 1 | 1 | 4 | 1 | 2 | 1 | | 4 | 26 | |
| 연분홍·연산호계 | | | 1 | | 3 | | 1 | | 1 | 1 | | 7 | |
| 감색(紺色) | | | | 4 | 1 | | | | | | | 5 | |
| 청록 | | | | 1 | | | | | | | | 1 | |
| 백색·미색 | 하늘색·쪽색 | 2 | | | | | | | | | | 2 | 2 |
| 백색·은/회색 | 회색계 | | | | | | | | 1 | 1 | | 2 | |
| 산호 | | | | | | | | 1 | | | | 1 | 3 |
| 백색 | 검정 | | | | | | | | | | 2 | 2 | |
| 미색 | | | | | | | | | | | 1 | 1 | |
| 적색 | | | | | | 1 | | | | | | 1 | |
| 개량한복 계 | | 59 | 12 | 24 | 15 | 20 | 5 | 25 | 12 | 9 | 30 | 211 | |

계의 순으로 이어지는 차이를 보였다.

생활한복은 활동성과 실용성을 강조하였으므로 화학섬유·면·인견 소재의 경우 적색계의 배색보다는 일상생활에 적합한 저채도의 배색이 많다. 아울러 모시 소재 한복은 백색이, 누비 소재 한복은 검정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백색은 일반적인 전통한복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지만 모시 소재에

서는 하늘색·남색·감색(紺色)계·보라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검정색 또한 silk 소재의 누비 한복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으로 소재와 계절별 특성이 큰 색상이라 할 수 있다.

<표 6> 생활한복 배색(화학섬유/면/silk)34)

| 색상 | 종류 | A | | B | | C | | D | | E | | F | | 화학 섬유 면 계 | silk 계 | 계 |
|---------|------|----------|----------|----------|---|----------|---|------|------|----------|----|------|------|-----------------|-----------|---|
| | | 화학 섬유 | 화학 섬유 | 화학 섬유 | 면 | 화학 섬유 | 면 | silk | silk | 화학 섬유 | 면 | silk | silk | | | |
| 백·은회색 | 주·색 | 1 | 1 | | | | | | | 1 | 2 | 1 | 1 | 3 | | |
| 홍 | (紺色) | 1 | 5 | | | | | | | | 6 | | | 6 | | |
| 연노랑 | | | | | | | | | | 1 | | | | 1 | 1 | |
| 보라계 | 보라계 | | | | 1 | | | | | 1 | | | 1 | 1 | 2 | |
| 미색계 | 복청 | | 1 | | | | | | | 2 | | | 1 | 2 | 3 | |
| 분홍·산호·홍 | 자주 | | | | 1 | | | | | 2 | | | 1 | 2 | 3 | |
| 분홍·산호계 | 정색 | | 1 | | | | | | | | | | 1 | | 1 | |
| 연소라 | | | | | | | | | | | 2 | | | 2 | 2 | |
| 백색 | 적색계 | | | | | | | | | 1 | | | 1 | 1 | | |
| 겨자 | | 1 | | 2 | | | | | | | | | 3 | | 3 | |
| 베이지·연황 | 밤색계 | | | | | | | | | 1 | 1 | | | 2 | 2 | |
| 황토계 | | | | | 1 | | | | | | | | 1 | | 1 | |
| 연주황 | | | | | 1 | | | | | 1 | | | 1 | | 2 | |
| 백색·미색 | 회색계 | | | 1 | | | | | | 1 | | | 1 | 1 | 2 | |
| 회색계 | | | | | | | | | | 1 | 1 | | 1 | 2 | 2 | |
| 주황·적색 | 검정 | | | | | | 1 | | | 2 | | 1 | 1 | 3 | 4 | |
| 회색·검정 | | | | | | | | | | | | | | | | |
| 생활한복 계 | | 6 | 14 | 3 | 5 | 2 | 1 | 14 | 5 | 31 | 19 | 50 | | | | |

<표 7> 생활한복 배색(모시/인견)35)

| 색상 | 소재 | 모시 | | | 인견 | | 모시계 | 인견계 | 계 |
|----------|-----------|----|----|----|----|------|-----|-----|----|
| | | 개량 | 생활 | 전통 | 기쁜 | 2005 | | | |
| 상의 색상 | 하의 색상 | | | | | | | | |
| 백색 | 백색 | 1 | | 4 | | | 5 | | 5 |
| 쪽색 | | | | 1 | | | 1 | | 1 |
| 연분홍·산호계 | | 1 | 3 | 2 | | | 6 | | 6 |
| 백색 | 분홍·산호·적색계 | | | 1 | | | 1 | | 1 |
| 은행 | | 1 | | | | | 1 | | 1 |
| 베이지·연노랑 | 베이지·노랑계 | | 2 | 1 | | | 3 | | 3 |
| 삼베·밤색계 | 황토·밤색계 | 2 | | | 1 | 4 | 2 | 5 | 7 |
| 미색·삼베 | | 1 | 2 | 1 | | | 5 | | 5 |
| 연보라·보라 | 보라계 | 2 | 2 | | | 3 | 4 | 3 | 7 |
| 미색·삼베 | | 2 | | | | | 2 | | 2 |
| 회색 | 회색 | | | | | 1 | | 1 | 1 |
| 하늘색·연쪽색계 | 하늘색·쪽색계 | 1 | 3 | 2 | | 1 | 6 | 1 | 7 |
| 백색 | | 1 | 1 | | | | 2 | | 2 |
| 삼베 | 감색(紺色) | 1 | | | | | 1 | | 1 |
| 연연두·카기계 | 쑥·카기계 | 2 | 1 | 1 | | 2 | 4 | 2 | 6 |
| 백색 | | 1 | | | | | 1 | | 1 |
| 백색 | 팔색계 | 1 | | | | | 1 | | 1 |
| 분홍·연팔색 | | | 2 | | | | 2 | | 2 |
| 계 | | 16 | 15 | 14 | 1 | 11 | 45 | 12 | 57 |

〈표 8〉 누비 소재의 생활·개량 한복 배색(silk/화학섬유/면)36)

| 색상 | 종류 | A silk | B silk | C silk | D silk | E 화학 섬유 | F 화학 섬유 | G 면누비 | 계 |
|---------|---------|-----------|-----------|-----------|-----------|---------------|---------------|----------|----|
| 상의색 | 하의색 | | | | | | | | |
| 백 | 감색(紺色) | | 1 | | | | | | 1 |
| | 적색 | 1 | | 1 | | | | | 2 |
| | 검정 | | 1 | 1 | 1 | | | | 3 |
| 분홍 | | 1 | | | | | | | 1 |
| 산호·적색계 | 감색(紺色) | | 1 | | 1 | | 2 | | 4 |
| 감색(紺色) | | | 1 | | | | 1 | | 2 |
| 진베이지·진밤 | 진베이지·진밤 | 1 | | | | | 1 | 1 | 3 |
| 미색 | | | | | | 1 | 1 | | 2 |
| 분홍·적색계 | 산호·적색계 | 1 | | 1 | 2 | | | | 4 |
| 백색·베이지계 | 먹자주·정색 | 1 | 1 | | 2 | | 1 | 1 | 6 |
| 산호·적색계 | | 1 | 1 | | 1 | | 4 | | 7 |
| 연보라 | 보라 | | | | | 1 | | | 1 |
| 산호·적색 | 진회색·검정 | 2 | 2 | | 1 | | 1 | | 6 |
| 검정 | | 4 | 2 | 1 | 2 | | 1 | 1 | 11 |
| 누비 계 | | 12 | 10 | 4 | 10 | 2 | 8 | 5 | 53 |

〈표 9〉 한복의 종류에 따른 치마(하의) 색상별 배색 분류

| 색상 | 종류 | 전통 | 개량 | 생활 | | 모시 | 누비 | | 인견 | 계 |
|----------------|----|-----|-----|-------------|------|----|------|-------------|----|-----|
| | | | | 화학섬유 / 면 | silk | | silk | 화학섬유 / 면 | | |
| 백색 | | . | 2 | . | . | 6 | 1 | . | . | 9 |
| 적색계 | | 107 | 50 | . | 3 | 2 | 6 | . | . | 168 |
| 분홍·진분홍계 | | 33 | 39 | . | . | 4 | 1 | 1 | . | 78 |
| 베이지·노랑계 | | 9 | 6 | . | . | 3 | 1 | . | . | 19 |
| 대추·정색계 | | 51 | 27 | 13 | 3 | 4 | 7 | 6 | . | 111 |
| 하늘색·남색·감색(紺色)계 | | 40 | 54 | 8 | 2 | 9 | 5 | 3 | 1 | 122 |
| 청록·카키계 | | 27 | 6 | 1 | 2 | 5 | . | . | 2 | 43 |
| 보라계 | | 7 | 20 | 1 | 1 | 9 | 2 | . | 3 | 43 |
| 밤색 | | . | . | 3 | 2 | 2 | . | 2 | 5 | 14 |
| 회색 | | 3 | 3 | 3 | 1 | 2 | 2 | 1 | 1 | 16 |
| 검정 | | . | 4 | 2 | 5 | . | 13 | 2 | . | 26 |
| 소계 | | 277 | 211 | 31 | 19 | 46 | 38 | 15 | 12 | 649 |
| 계 | | 277 | 211 | | 50 | 46 | | 53 | 12 | 649 |

IV. 결론

한국의 전통색은 주술적 사상, 음양오행사상, 유교적 세계관, 시대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변화되면서 자연색과의 조화를 이루는 민족적 색채 정서에 의해 은은하면서 조화로운 색채배색체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淡彩色 계열로 보이는 서민층의 한복 색채와, 궁중 및 부유층의 복식, 의례복, 명절복 등 고

채도로 표현되는 색채의 조화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색채가 강한 한복은 근래에 들어 의례복식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면서, 과거 평상복의 색채에서 과감하고 화려한 색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인 혼례용 배색에서도 개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배색의 선택시 한국인의 정서는 연령 및 용도와 함께 고려되고 있으며, 서양복의 배색과도 차별화되고 있다.

| 2000년대 전통 한복의 배색 | | | | | | | | | | | |
|------------------|---------------|--|--|--|--|--|---------------|--|--|--|--|
| 구분 | 2000년대 전반기 배색 | | | | | | 2000년대 중반기 배색 | | | | |
| 일반 | | | | | | | | | | | |
| 신부 | | | | | | | | | | | |
| 신랑 母 | | | | | | | | | | | |
| 신부 母 | | | | | | | | | | | |
| 2000년대 개량 한복의 배색 | | | | | | | | | | | |
| 구분 | SILK 소재 배색 | | | | | | 화학섬유 소재 배색 | | | | |
| 동일 유사 | | | | | | | | | | | |
| 백 색 | | | | | | | | | | | |
| 대 비 色 | | | | | | | | | | | |
| 고 명 도 | | | | | | | | | | | |
| 2000년대 생활 한복의 배색 | | | | | | | | | | | |
| 화학 섬유/ 면 | | | | | | | | | | | |
| 모시 | | | | | | | | | | | |
| 인견 | | | | | | | | | | | |
| 누비 | | | | | | | | | | | |

〈그림 2〉 2000년대 한복의 종류에 따른 배색

2000년대에 나타난 전통한복의 배색경향과 용도별 한복의 배색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복 배색의 경향은 전통적인 한복의 색채

에 시대적인 정서가 적용되어 변화하고 있다. 현대 한복의 배색은 염료 및 기술의 발달과 개성존중 및 한복의 예복화 경향으로, 다양한 색상과 톤으로 표현되고 있다. 아울러 2000년대 이후 사회전반에 나

타난 전통 지향성에 따라 전통색의 색조가 중시되면서도 새로운 감각이 어우러지는 색채 경향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한복의 배색은 사회경제적인 영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2000년대 전반기에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명도와 채도가 낮은 가라앉은 느낌을 주는 한복 배색이 많았으나, 2000년대 중반기의 한복 배색은 명도와 채도가 높아져서 전반기에 비해 밝고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 디자인과 품질 면에서 다양화된 2000년대 개량한복의 배색 역시 전통한복과 마찬가지로 중반기로 갈수록 점차 밝게 변하고 있는데, 특히 화학섬유 소재인 경우의 색상이 더욱 화사하다. 한편 한복을 여러 벌 구입하지 않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전형적인 배색 틀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는데, 특히 전통적인 혼례용 배색에서 저고리의 색상범위가 넓어지고 연령에 비해 짙고 화사한 배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그러하다.

셋째, 2000년대의 한복은 자연스러운 느낌의 색채를 선호하고 이에 따른 배색표현에 전통적인 색조를 반영하고자 손염 및 침염 등의 염색으로 원색 계열이 아닌 혼합색의 톤이 많아졌다. 또한 단색 및 이색배색에서 고름의 색을 달리한 삼색배색의 비율이 높아지고 부분적인 색동 조각과 패치 장식의 활용 및 배자 등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배색의 종류와 표현이 증가하였다.

넷째, 색상이 선명한 silk 소재의 2000년대 전통한복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총 277벌에 대한 여자한복의 배색 경향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자 한복 배색의 유형은 대비 배색(Color contrast)-색상 대비와 명도 및 채도 대비 149, 동색 계열 배색(Tone on tone) 56, 유사색 배색(Analogy coloring) 23, 동색 배색(Accent coloring) 20, 톤인 톤 배색 (Tone in tone) 17, 다색 배색(Multi coloring) 12의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비 배색은 우아한 분위기를 주는 유사 배색 및 동일계열 배색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났는데, 이는 한복의 예복화 경향으로 인한 색상 변화와 무관하지 않고 여겨진다. 또한 치마 색과 저고리 색이 같은 배

색보다 서로 다른 배색이 많고, 이 경우 저고리보다 치마가 더 짙은 배색의 분포가 많았으며, 대비 배색과 멀티 컬러 배색은 비교적 낮은 연령층을 위한 배색으로, 톤 인 톤 배색, 유사 배색, 엑센트 컬러링 배색은 주 연령층이 높은 한복 배색에서 사용되었다.

다섯째, 한복의 용도에 따라 총 649벌의 한복 배색을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전통한복·개량한복·생활한복은 디자인과 소재 뿐 아니라 배색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치마 색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전통한복은 적색계인 배색, 대추·정색계, 하늘색·남색·감색(紺色)계, 분홍·진분홍계의 순이었으며, 개량한복의 경우는 치마가 적색계인 배색, 하늘색·남색·감색(紺色)계, 분홍·진분홍계, 자주·정색계의 순으로 이어져 전통한복과 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를 응용한 생활한복은 활동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저채도의 배색이 많게 나타났다. 또한 모시 소재 한복은 백색이, 누비 소재 한복은 검정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생활한복의 배색은 소재와 계절의 관련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상복으로서의 한복은 개화기를 거쳐 서양복의 등장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사회·문화적 배경과 맞물린 변화 속에서도 민족 고유 복식이라는 자긍심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적인 美意識을 유지·발전시키면서 배색에 따라 이미지가 변하는 한복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전통적인 색채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대 한복의 배색과 시대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복 배색의 분류 시 인쇄 색상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유사배색의 경우 톤인톤 배색이나 동색계열 배색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웠던 점과 모든 유형의 한복을 분석하였다 고 볼 수 없으므로, 분석의 수치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1) 유희경 외 (1999). 한국 전통복식에 관한 소재 연구. *한국과학재단*, 1, 4.
- 2) 소비시장의 양·현성과 기업의 대응 (2002).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 3) 임원희 (2002). 한국전통복식의 배색 이미지. 전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3.
- 4) 이해숙 외 (1998). 한복의 무늬배열·무늬형태·의복색이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1, pp. 45-47.
- 5) 조희래 (1995). 한국적 복식디자인을 위한 색동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5.
- 6) 김지언 (1995). 한국인의 녹색 상징의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 7) 유희경 외 (1999). 앞의 책, p. 67.
- 8) 김지언 (1995). 위의 논문, p. 24.
- 9) 김영숙 (1988). 韓國 服飾史에 나타난 傳統色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30-231.
우리나라에서 유색의 정착은 중국의 관복제도의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외래 적 색채 개념이 우리의 본질적인색채 개념에 유입되고 기후가 염료를 생산하는 풍토에 따라 농 담과 기호가 변화 정착하는 단계를 갖게 되었다.
- 10) 유희경 외 (1999). 앞의 책, p. 83.
- 11) 김영숙 (1988). 위의 논문, p. 225.
- 12) 김미진, 조우현 (2006). 한국 근대 서양화에 표현된 한복의 배색에 관한 연구. *복식*, 56(1), p. 5.
- 13) 김지언 (1995). 위의 논문, pp. 21-25.
- 14) 김문영 (2005).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한국전통색 활용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3.
- 15) 유희경 외 (1999). 앞의 책, pp. 72-79.
- 16) 유송옥 (2001). 우리의 전통 예절, 문화재 보호재단. 계문사.
- 17) 김순영 (2005).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연상적 의미. *복식*, 55(3), pp. 1-18.
- 18)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274.
- 19) 조효순 (1990). 服飾, pp. 85-91, 대원사.
- 20) 김미진, 조우현 (2006). 앞의 책, pp. 1-12.
- 2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86).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p. 15, p. 56.
- 22) 조효순 (1990). 앞의 책, pp. 85-91.
- 23) 김미진, 조우현 (2006). 앞의 책, p. 11.
- 24) 이현숙 (2006). 현대 한복의 장식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
- 25) 유희경, 김찬주, 홍나영, 이주현 (2004). 복식학회 춘계 학술지, p. 53.
- 26) The Color Coordination For Designers (1990). KBS 한국색채연구소.
- 27) 김순영, 남윤자 (2002). 조선후기와 현대의 여자한복 형태 비교. *복식*, 52(5), pp. 61-77.
조선후기와 현대의 여자한복 형태 비교에 의하면, 풍

속화와 현대 카탈로그에 나타난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을 동일, 유사, 대조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대조가 조선 후기 56.8%, 현대 58.7% 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사는 조선 후기에 34.7%, 현대에서는 11.8%를, 동일은 조선 후기 4.7%, 현대 29.5%로 각기 다른 비율을 보이고 있다.

- 28) 김장향, 함옥상 (1983). 韓服과 西洋服의 面分割에 따른 配色 感情效果에 관한 比較研究. 과학논집, 5, p. 44.
- 29) 강혜원, 고애란 (1991). 한복 및 한복의 선을 이용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5, pp. 12-15.
- 30) The Color Coordination For Designers (1990). 앞의 책.
- 31) 심화진 (1997). 중년여성의 생활사에 나타난 한복 착용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生活文化研究. 11. pp. 115-133.
- 32) 진솔 (2003), (2004 / 2005), (2005 / 2006). 앞의 책.
- 33) A 꽃가마 (2005). 가을·겨울 생활한복 카탈로그
B 부홍사 (2005). 가을·겨울 생활한복 카탈로그
C 참멋. 2005 Autumn collection
D 참멋. 2005 Spring collection
E 韓服美人. 2005 Spring collection
F 韓服美人. 2005 Autumn collection
G 우리의 옷 美人 (2004). 다섯번째
H 천생연분. 2005 Spring Hanbok collection
I 십장생 개량한복 (2002 / 2003)
J 아씨방. 2005 Fall/Winter collection
- 34) A 꽃가마 (2005). B 부홍사 (2005), C 아씨방 (2005). 위의 책.
D 우리의 옷 美人 (2004), E 韓服美人 (2005), F 십장생 개량한복 (2002 / 2003). 위의 책.
- 35) 기쁜날은 우리옷 (2004). 신신세모시.
모시향기 (2005). 대광.
우리옷 예나. 2005 SUMMER/HANBOK COLLECTION
- 36) A 우리옷 다복사랑. 2005
B 서광실크 (장희빈 누비). 2005 / 2006 WINTER HANBOK COLLECTION
C 십장생 개량한복 (2002 / 2003)
D 우리옷 참멋. 2004 / 2005 겨울 참멋 누비
E 우리의 옷 美人 (2004). F 아씨방(2005), G 꽃가마 (2005). 위의 책.